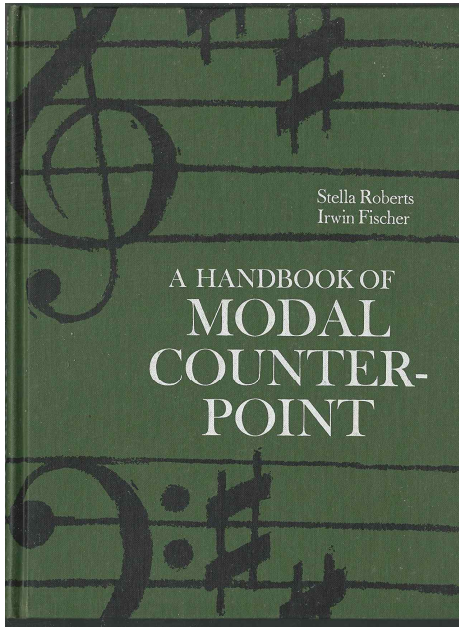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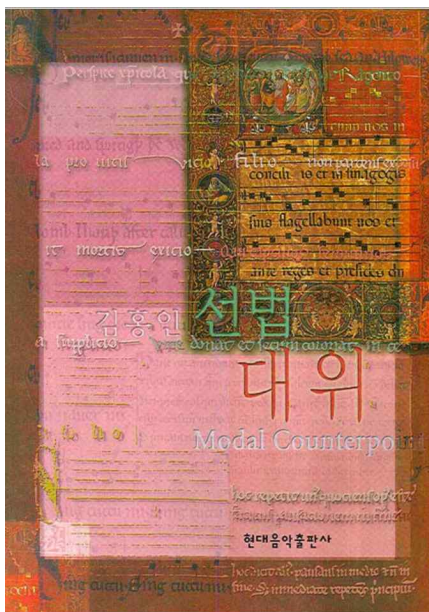


제1강 16세기 대위법 소개 & 제1종 대위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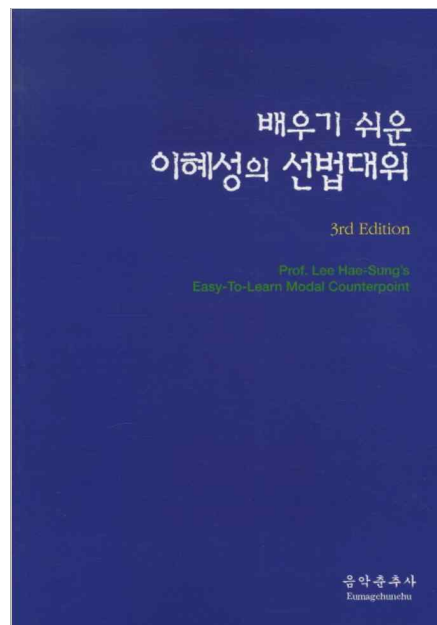
1. 16세기 대위법 교재 소개



- Irwin Roberts, Stella & Fischer. *Handbook of Modal Counterpoint*. 1967.
- 대위법(16세기스타일). STELLA ROBERTS 지음. 서경선 옮김. 수문당



- 김홍인. 선법대위. 현대음악 출판사. 2007.



- 이해성. 배우기 쉬운 이해성의 선법 대위(3RD EDITION). 음악춘추사. 2011.
- Peter Schubert. *Modal Counterpoint Renaissance Style* 2nd Ed. 2007.
- Douglass Green, Evan Jones. *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Modal Counterpoint*. 2011. 2nd
- Thomas Benjamin. *The Craft of Modal Counterpoint*. 2nd Ed. 2005.

2. 16세기 대위법 - 서론

1) 화성법과 대위법(교재 p. 1)

- 화성법은 화음 연결을 다루고, 대위법은 선율의 배합을 다룬다.
- 화성은 종(縱)적인 면을 다루지만, 대위법은 횡(橫)적인 면에 중점을 둔다.
- 화성은 주로 음악의 색채와 관련되지만 대위법은 선에 관련된다.
- 화성에서는 한 선율이 우세하지만 대위법에서는 각 성부가 거의 동등하다.
- 화성에서는 모두 성부가 1개의 악상을 의미하도록 단합되어 있으나 대위법에서는 모두 성부가 개개의 악상을 의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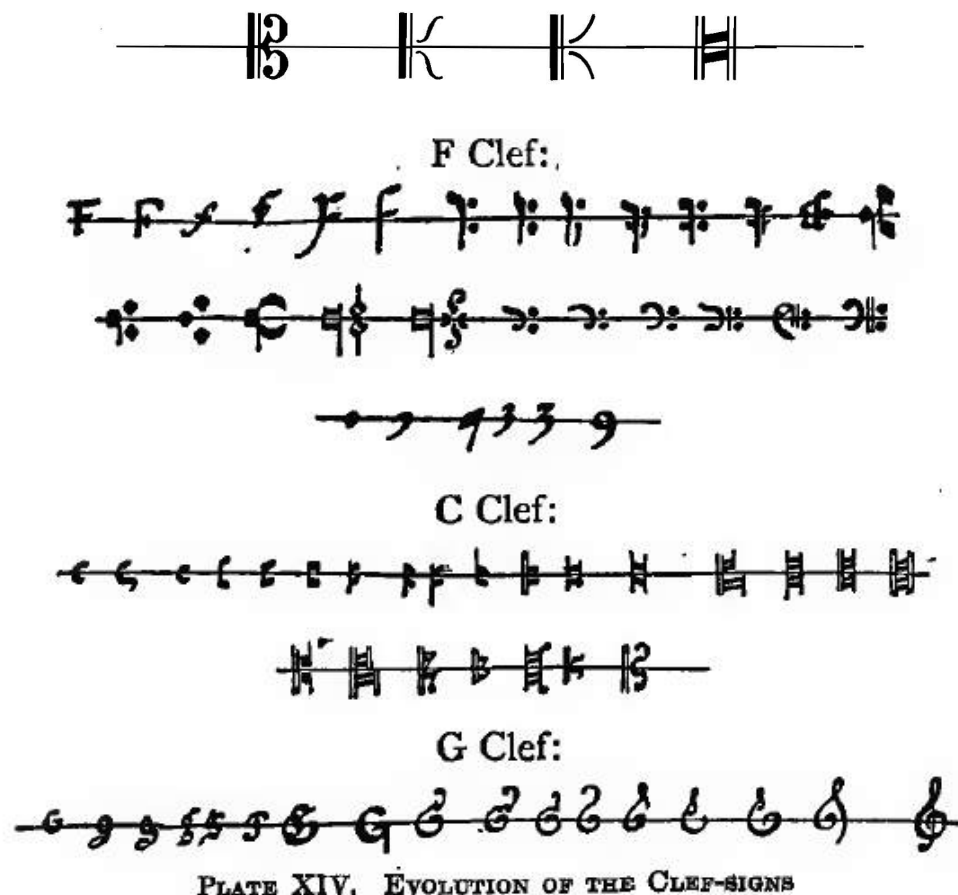
2) 16세기 대위법의 역사적 의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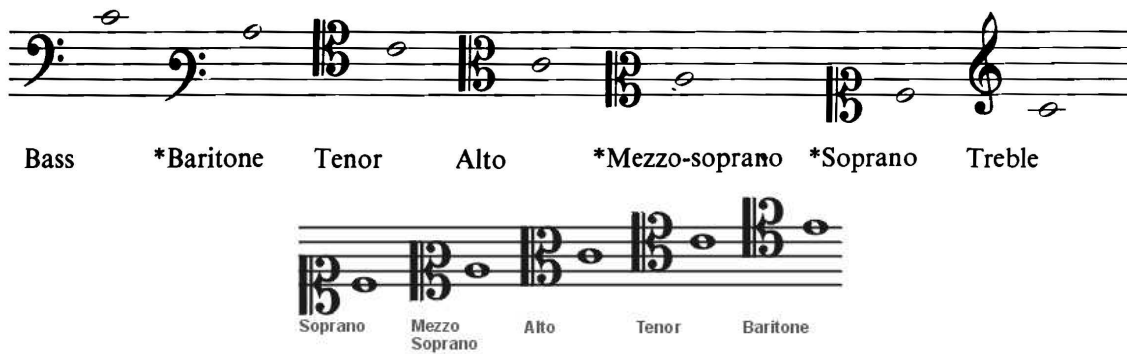
- 팔레스트리나 스타일은 투명하고 단순한 화성과 아카펠라의 구조를 보인다.
- 선법에 기초한 양식으로 18세기 조성 기반의 음악과 대비된다.

3. 대위법 풀이를 위한 기본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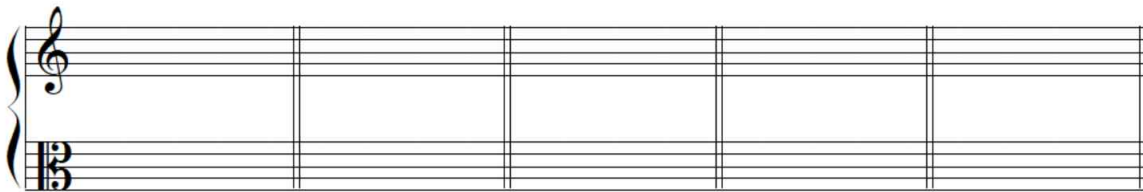
1) 가온 음자리표(C clef)와 Open Score의 사용

① 가온 음자리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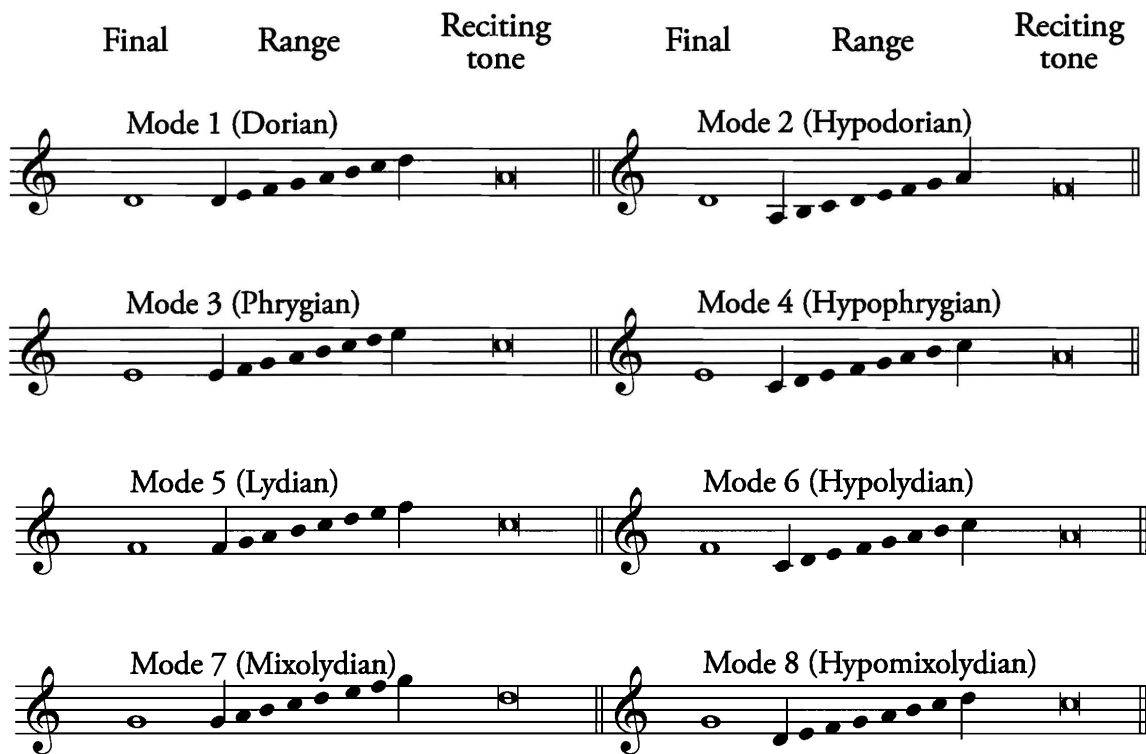


② Open Score의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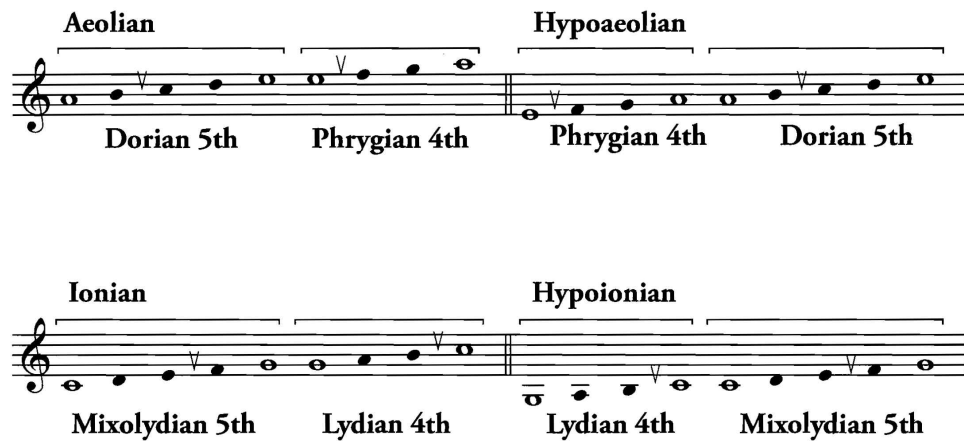


2) 교회 선법

① 그레고리 선법



- 16세기 Heinrich Glarean에 의해서 추가된 선법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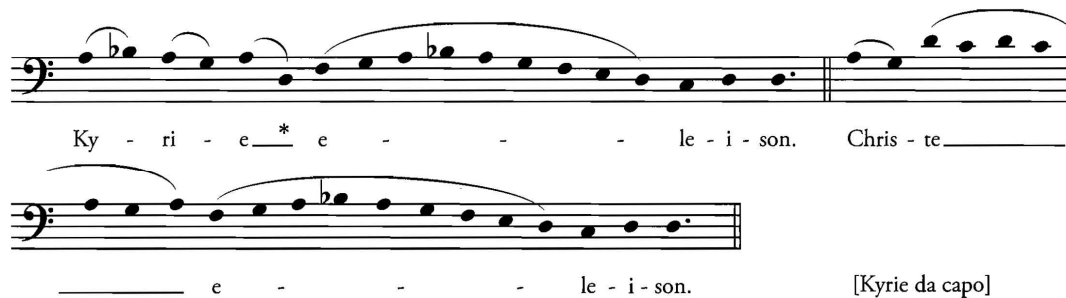


② 다성적 선법(15-16세기 선법)

- 정격과 변격의 구분이 모호해짐 - 성부들마다 정격과 변격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음
- 에올리아와 이오니아선법이 교회음악에도 사용됨
- Bb은 A로 하행하는 경우, F와 관계하여 많이 사용되었다. => 리디아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. 반복된 Bb의 사용은 조옮김된 이오니아가 되었다.

<예시>

- 도리아 선법의 예로 A음 사이에 Bb이 사용됨



- 조옮김은 Bb을 사용한 조만 씀

3) 정선율

- 16세기 대위법 풀이에 사용되는 정선율은 대개 성가의 선율 등을 사용한다.
- 특히 모든 음들의 길이를 같게 하고, 느리게 움직인다. 그리고, 이 음들과 어떻게 대선율이 대응하는지에 따라 종별 대위가 성립한다.

4) 종별대위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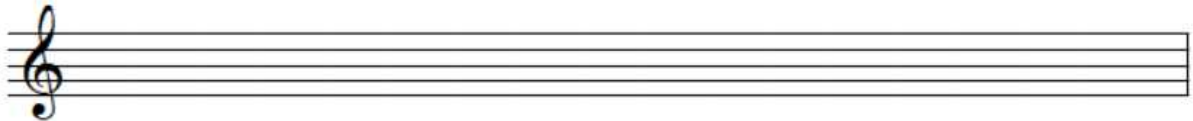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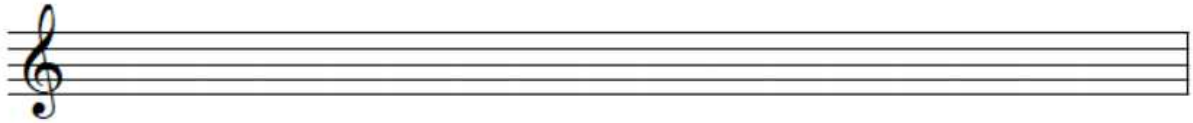
- 1종 - 1:1
- 2종 - 1:2
- 3종 - 1: 4
- 4종 - 1: 당김법(붙임줄로 연결된 2분음표)
- 5종 - 혼합

4. 2성부 제1종

1) 선율적인 원칙

- ① 순차진행을 주로 함
- ② 가능한 음정들
 - 순차의 경우 : 장, 단 2도가 지배적 증음정이나 반음계를 쓰지 않음
 - 도약의 경우
 - 가능한 것: 장, 단 3도, 완전 4도와 5도
 - 상행 단6도, 완전 8도
 - 장6도는 드물고 7도, 감, 증, 겹음정은 16세기 스타일이 아님

주의할 진행 : 동음반복, 반음계적 진행, 장6도 상하행, 단6도 하행¹⁾



도약과 그 다음 진행의 관계²⁾



B, Bb 음의 처리³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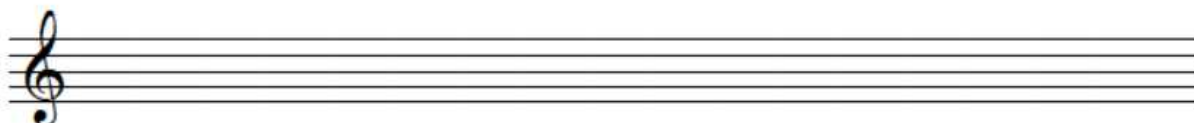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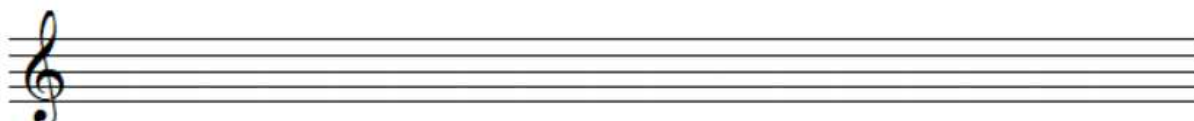


③같은 방향으로 두 번 이상 도약을 피할 것(분산화음식 진행은 좋지 않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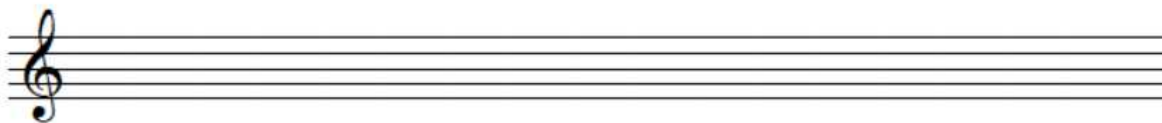


④ 3개의 음이 같은 방향으로 도약한 결과로 피해야 할 음정4)

- 장7도
- 겹음정
- 증4도(감5도는 가능)
- 계속되는 완전 4도 도약으로 이루어진 단 7도
- 단 7도의 경우에도 완전 5도 뒤에 단3도의 경우 허용함. - 이 경우도 하행은 좋지 않음



⑤ 단6도와 옥타브 도약의 앞음 혹은 뒷음은 도약음정 안에 드는 음들로 구성될 것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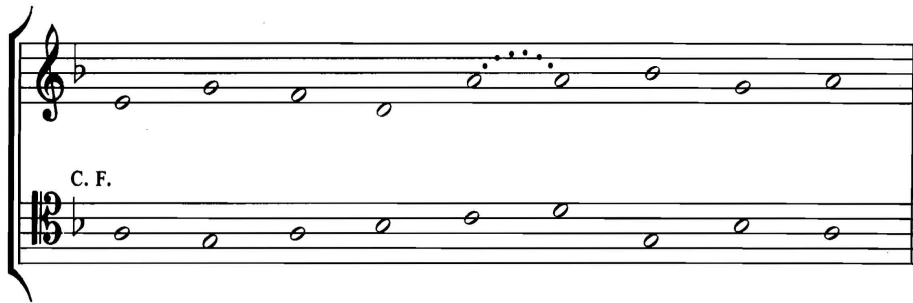
⑥반복음이나 붙임줄로 연결된 음이 가능 - 가능한 횟수는 교재마다 다름

<김홍인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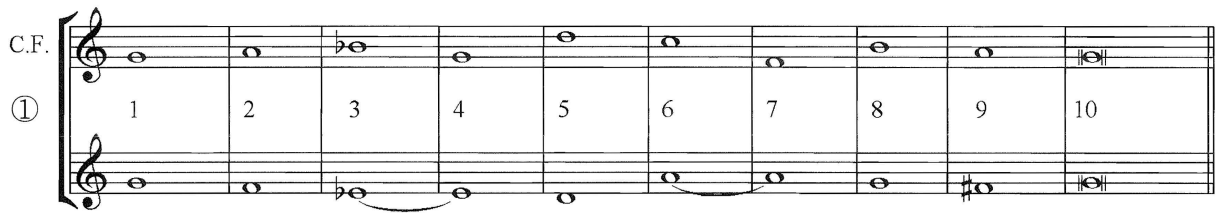


<주교재>

b. 조옮김된 프리지아



<이해성>



⑦ 동형진행이나 음역이 단조롭지 않도록 - 절정이 되는 점이 필요하고, 최저음과 최고음의 윤곽이 필요함

⑧ 무지카 픽타의 사용

- Bb을 주로 사용해서 증 4도나 감 5도를 피함
- F#은 에올리아 선법에 나타날 종지에서 증 2도를 피함
- Bb의 조표가 사용될 경우 Bb 대신 Eb이 사용될 수 있다.

2) 화성적 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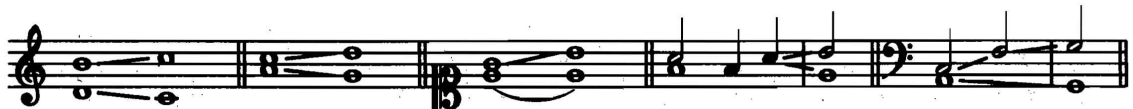
① 온음표의 정선을 위에 온음표의 대선을

② 가능한 음정 - 협화음정만

- 완전협화 - 완전 1도, 5도, 8도 : 공허한 음향
- => 완전협화음정에서 완전협화음정으로 진행할때는 반드시 반진행이나 사진행해야 한다.



=> 불완전 협화에서 완전 협화음정으로 진행할때에는 반진행이나 사진행을 한다.



=> 이외의 경우 (ex. 완전 협화에서 불완전협화, 불완전협화에서 불완전 협화로 가능 경우) - 반진행, 사진행.

유사진행이 모두 가능

- 불완전 협화 - 장단 3도와 장단 6도
- 2성 대위에서 제외되는 협화 : 완전 4도

③ 시작 : 완전 협화만 사용

- C. F. 가 아래 있을 경우 - 완전 1도, 8도 및 5도 사용 가능
- C. F. 가 위에 있을 경우 - 완전 1도, 8도

④ 완전 1도는 처음과 끝에만 사용

⑤ 불완전 협화 사용이 바람직 - 단, 3도나 6도가 4회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고, 성부교차가 포함되어도 마찬가지이다.

⑥ 성부교차는 교재마다 견해가 다르다.

⑦ 성부간 거리가 12도를 넘지 말 것

⑧ 병행과 은복에 관한 규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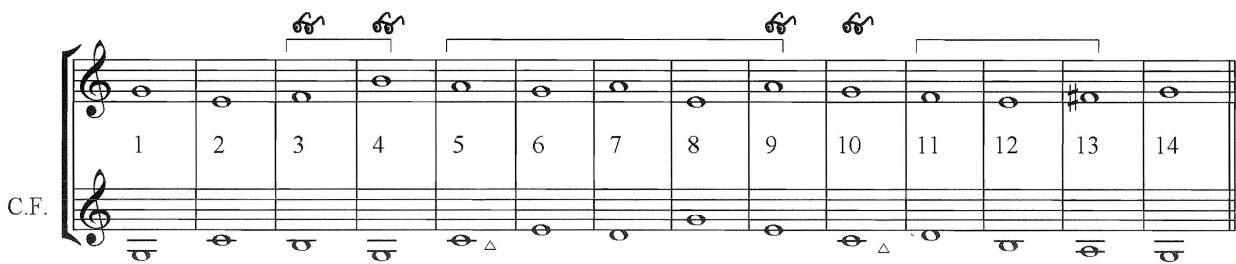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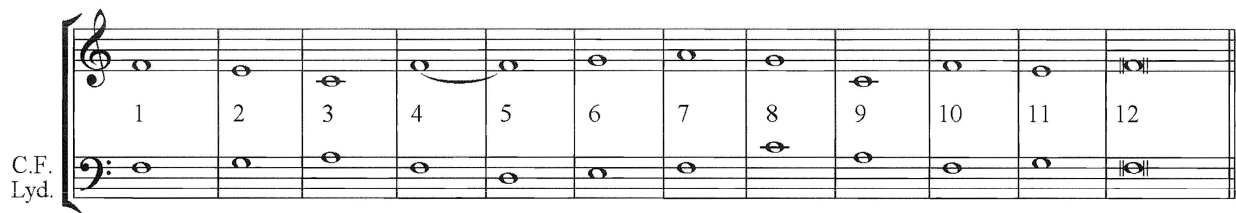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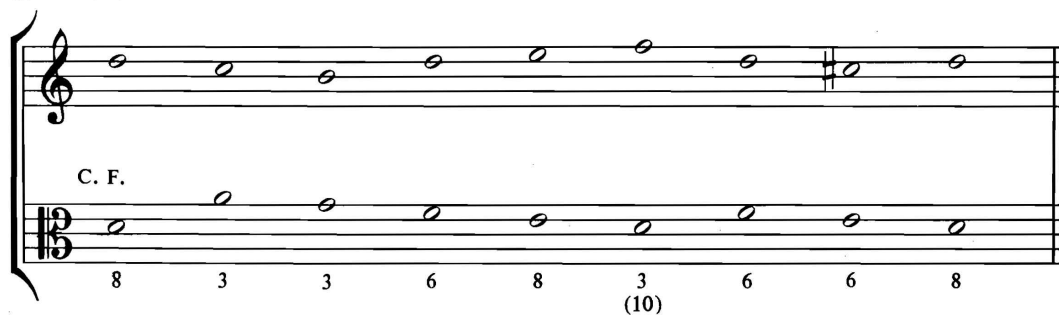
<병행5도> 금합 <병행8도> 금합

<은복5도> 금합 <은복8도> 금합

⑨ 허용되는 5도와 8도, 교차와 반진행 - 책마다 다름

a. b.

⑩ 종지 만들기



과제

1, 다음 보기에서 16세기 대위법의 1종 폴이에 맞지 않는 예를 찾아 번호와 근거를 밝히시오.

(a)

C.F.

1 2 3 4 5 6 7 8 9 10 11

(b)

C.F.

1 2 3 4 5 6 7 8 9 10 11

